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무엘상 16:14-23, 마가복음 9:14-23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아마 문제가 없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천국에 가야 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 못 하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있기 마련이다. 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 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든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답, 완전한 해답이 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말씀 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도행전 4:12에는,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분을 모셨더니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답을 가진 것을 감사한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모든 염려를 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의 말씀이다. 직장에서, 경제에 대해서, 가정에서,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모든 염려를 다 십자가 밑에 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다가 참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란다.

1. ‘오직 예수’의 비밀을 굳게 붙잡으라.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염려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 바로 ‘오직 예수’라는 열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고 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의 본문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주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지어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살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할 만큼 황홀해 했었다. 천국을 보았던 모양이다. 신비주의 말고, 이런 복음의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를 각인시키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9장 본문의 첫 번째 광경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이다.

(1)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 결론 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염려를 버리기 위해서 발견하고 누려야 할 첫 번째 방법이다.

①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영적 문제를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원인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만이 인간을 죄의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1)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참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22-24, 베드로전서 3:18에 분명히 말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은혜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2)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14에 보면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자는, ‘예수님이 무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과 싸우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들이 분명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런 자들이 이단이다. 그러면 왜 오셨나. 직장 문제 해결하려고? 뺨 문제 해결하려고? 돈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3)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직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받을 수 없다.

② 그 이름을 붙잡을 때만 영적 문제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가? 이 결론이 안 난 사람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다.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 명예, 지식, 사회적 지위를 배설물 같다고 했다.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것은 그것과 비할 수 없다고 했다. 여러분이 모두 이 깨달음에 이르기를 축복한다. 그리스도 한 분 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예수 한 분 만으로 만족하옵니이다’ 하는 복음송이 옛날에는 있었다.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예수 한 분 만으로 만족하옵니이다. 밭에 나가 일할 때 예수 동행 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함께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예수 한 분 만으로 만족하옵니이다.” 예수 한 분 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복이 우리 참사랑 가족들의 행복이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오, 구원의 이름이요,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승리해야 되겠다. 힘든 분들은 한 가지만 기도해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한 번 해 보라. 어떤 사람은 ‘주여’를 천 번을 불렀더니 목은 쉬었지만 마음은 후련해지더라고 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기도는 무엇인가?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 이길 수 있다. 그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2) 이렇게 오직의 결론이 나면, 이때부터 두 번째 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유일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현장에서 누려지는 단계가 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오직’으로 붙잡으면,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체험되기 시작한다. 스가라 4:6에 말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속에서부터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참사랑 가족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3)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변화시키는 재창조를 일으키는 것이다. 마가복음 9:18에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 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세상과 현장의 상태다. 주님이 여기에 가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현장의 상태를 뒤엎어버리신 것이다. ‘오직’을 붙잡으면 내가 살아난다. 이것이 ‘유일성’이다.

①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결국 현장의 영적 흐름이 변화된다.

② 지식의 흐름이 변화된다. 바울은 사도행전 9:1-15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영장을 받아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다. 죽이면 안 되니까 눈을 살짝 때리셨다. 광명한 빛이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인다.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는데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나? ‘내가 스테반을 죽이는 가면 투표에 찬성했고 옷을 맡아두면서 죽이는데 앞장섰었는데, 그때 죽었던 스테반이 부르던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야였구나. 내가 몰랐구나.’ 구약성경을 위우고 예언을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통통했던 바울이었지만, 이때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다 몰랐구나.’ 혹시 이 가운데에도 뭘 안다고 생각하는 분은 바울같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한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 바울은, ‘내가 다 알았었지만 아무 것도 몰랐구나.’ 구약의 주인공인 메시야를 몰라보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잡아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지 않나. ‘내가 죄인의 괴수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지식의 흐름이 완전히 변해 버린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기록하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돈, 학벌, 문벌, 명예, 지식,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 그 정도로 지식의 흐름이 바뀌었다.

③ 문화의 흐름도 바뀌게 되어 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가 보니까 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무당이 다 꺾여 버렸다. 완전히 장님이 되어 버렸다. 총독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면 문화의 흐름도 변하게 된다.

④ 경제의 흐름도 변하게 된다. 빌립보서 4:19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다 채우신다고 했다. 우리가 울-인 하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에 바로 서기만 하면 주님은 다 주신다.

나는 두 번의 경험이 있다. 신학 공부를 마쳐 마지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도저히 갈 수 없었다. 재산이 0원이었다. 한나도 없었다. 그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이 몸을 드렸으니까,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저를 교회로 보내 주세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3일 째에 연락이 왔다. “포천에 정착민 마을이 있고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당신이 갈래?” “갈래가 뭐냐. 빨리

가 보자.” (웃음) 그래서 같이 가서 보고, 거기에서 시무하게 되었다. 그것이 1970년 1월이다. 이제 46년이 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 여러분, 정말 잘려 보라.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지신다. 나는 이력서도 쓰지 않고 세 교회를 다니며 섬겼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 시절은, 이력서에 내 교향을 쓰면 더 보지도 않고 버려 버릴 때였다. 그래서 이력서를 안 쓰게 하셨나보다 싶다.

또 한 번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했다. ‘내가 지금까지 회미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진짜 복음을 알게 되었구나. 이 복음을 위해 내 생을 바쳐야 되겠다. 내 남은 생애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다. 그런데 장로님 7명 중에 6명이 나갔다. 교인 250명이 나갔다. 절반이 나간 것이다. 여러분은 내 얼굴을 평안하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제야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았는데, 이 복음 아니면 저들이 망하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습니까.” 새벽에 혼자 나와서 두어 시간을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찬양을 두어 장 부르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려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이 찬송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다. 괜찮다. 오도일 이관지,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떨어버리고 나오는데, 3일이 지나서 웬 사람이 찾아왔다. “목사님, 여기는 주택가라서 교회를 못 짓습니다. 땅을 싸게 사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더니, 지금 있는 땅과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를 소개해 준 것이다. 그래서 주신 땅이고, 그래서 세운 교회다.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라. 누가 또 나를 찾아왔다. 여기를 팔면 돈을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내가 화를 내면서 쫓아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다면서 돌아갔는데, 그런 말 들으면서 살지 말라.

70인 비밀결사대가 오늘도 올라왔다. 우리도 해낼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짓밟으시겠나.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왜 나를 어렵게 하시겠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응답을 받고 살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1억 원 응답받을 70인 비밀결사대가 되든지, 1천만 원 응답받을 300인 용사가 되든지 하라. 그러면 끝난다. 다시 한 번 수리해서 내년에 헌당할 수 있다. “권사님,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그냥 두면 다른 데 쓸 것 같아서 바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 집이 11억 원 짜리가 되었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이다. 응답받으면서 살라. 응답으로 하면 된다. 늘 당하고 살지 말고 원수를 이겨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응답을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2.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깨달았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능력을 누리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에이, 여자가 바보구나. 쓸 데도 많을 텐데 뭘 하나님께 드리냐.” 그러니까 여러분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것이다. (웃음)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겨 보라.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마가복음 9:29의 말씀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에스겔 36:36-38에,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고, 사람으로 가득차서 번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고에 마음껏 쌓아놓으신 것을 찾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권세를 사용해서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무너뜨리는 답이 기도다. 어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다. 밥을 굶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기도 집중을 누리라는 말이다. 한 번 진심으로 기도해 보라. 응답의 날이 올 것이다.

(1) 그래서 모든 참사랑 가족들은, 오직 복음을 누리는 24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란다. 나의 하루 24시를 전부 복음을 누리는 스케줄로 바꾸는 것이 기도 집중이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정리해서 기도해 보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기만의 기도 스케줄을 만들어라. 예배 시간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도 집중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기도로 복음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생활 전부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주여, 내게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열 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지 않나. 일천 번제를 쌓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 솔로몬의 번제를 들으신 것이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반복되어서 나에게 각인될 때, 비로소 모든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염려는 사라져 버리게 된다. 나를 살리는 24시 기도 집중으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한다.

(2)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시의 시간이 오게 된다. 게오르규가 ‘25시’라는 소설을 썼는데, 25시가 무슨 말인가? 인간에게는 24시간까지밖에

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시간이 그 밖에 있다. 이것이 25시다. 여러분 산업, 직장,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한다. 램네프의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한다. 나에게 있는 시간은 24시 뿐이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만이 개입하시고 작업하실 수 있는 25시가 열린다. 다니엘은 기도를 지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열 배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더 주셨다. 유일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3) 이것이 후대에게 심겨지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잠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작은 시간이 백 년 동안 응답받을 내용으로 연결된다. 천 년 동안 지속될 만큼 한 시대의 응답이 오게 된다. 일곱 램네프가 다 이런 정도로 응답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다. 마르틴 루터는 천 년 동안의 흑암을 쫓아 버리는 종교개혁에 혼자서 성공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것이 간단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후대를 통해서 지속되는데, 이것이 영원의 응답이다. 때로는 램네프들이 편지를 보내온다. “우리가 있으니, 목사님, 답대하세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언제 자라서 그것 할래. 할 만한 사람은 짝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웃음) 그러다가도, ‘맛다. 너희들이 중직자가 되는 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서는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램네프들은 승리하시기 바란다. 나는 사실 램네프 여러분의 돈은 필요 없다. (웃음)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몸 된 교회의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려운 게 없어진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우주 만물을 내가 내 마음대로 지었느니라. 주님이 쓸어버리면 간 곳 없어진다. 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단연코 열 자가 없고 열면 달을 자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살라. 주님을 의지해 보라. ‘나는 바보가 안 될 거야’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다윗이 남긴 작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한 응답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주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집중을 시작하는 24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루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복음 누리는 기도제목들을 정리해서, 기도 스케줄을 계획해 보시기를 바란다. 새벽에 할지, 저녁에 할지, 점심시간에 할지, 옥상에서 할지, 화장실에서 할지 스케줄을 정하라. 다윗이 이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 시편 5:3에,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다. 시편 17:3과 시편 77:2에는, 밤에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했다고 했다. 시119:55에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예레미야애가 2:19에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이다.” 사무엘하 12:16에는 다윗이 밤새도록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이다. 시편에 보면 낮에도 기도했다고 했다. 민수기 14:14에,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시편 1편, 23편에 보면 주야로 주님을 묵상했다고 했다. 낮이고 밤이고, 주님을 향해 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고 신앙인들이 말한 것이다. 이런 기도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쁜 시간 중에서도 항상 기도의 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귀신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권세가 기도 스케줄과 기도 집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오늘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에 집중하다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24, 25, 영원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한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이 예배시간인 것이다. 참사랑 가족들이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받아야 할 응답이 바로 예배 성공이다. 예배 성공에 우리 생명을 걸 만큼 실천해야 한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깊은 기도가 전부 예배기도에서부터 나온다. 예배시간의 모든 순서를 전부 복음 체험하는 기도 시간으로 바꿔 버리면, 그때부터 한 주간의 기도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나온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붙잡으면, 한 주간 내내 기도를 지속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배 성공을 위해 집중하는 영적 싸움을 전 성도가 실천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어지는 성공의 리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예배 스케줄을 성공시키시기 바란다. 주일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중직자들부터 앞장서서 성공시키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예배시간마다 복음을 누리는 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의 생애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예배를 오직을 지키는 전쟁으로 누리다가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한 평생 사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줄 알고, 기도에도 오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25시,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